독자초대석

"K형! 부끄럽습니다"

독자투고 … 학생과를 떠나면서

부정불능의 현실을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도 그런 것 같은 가면을 쓰고 '행랑'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좀 더 철저히 변장하기 위해 스스로 커튼이 내려진 삶에 중독되어 버리고는 변증법의 논리들을 동원합니다. 허무와 고독과 괴배의 절망감 속에 괴로와하면서 죽음을 삶으로, 자멸을 도약으로 왜곡시키며 자신의 광기(狂氣)를 숨기려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학적부에 상처를 남기고 대학의 무대뒤로 사라져가는 오늘의 후배들을 보고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골고다'의 산정으로 오르기를 포기했습니다. 밤새워 술을 마시고 둘같은 머맞속에 담배연기를 뿜어대며 또는 냉혹한 현실에서 눈감기 위해 처졸한 관념조각으로 몇마디의 변명구를 만들어 내고는 학생지도선생으로의 자리를 잠착해보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직원으로 학생지도선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독기오른 술기운에 비틀거리고 회오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본자학의 굴레를 쳇바퀴 돌리듯 굴려보아도 나에게는 마땅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년이상을… K형!

나는 K형에게 어떠한 글을 써야 할 것인가 망설여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용기를 갖고 글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 일상(日常)의 상투화된 작업 이하가 된다하더라도 몇마디의 글이 기질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안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K형!

머리를 조아립니다. 불초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진실에서 우러난 불초자, 불초순은 겸손의 덕목이지 가식의 비하는 아닙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회초리를 든 스승상에, 눈물 머금은 존경의 제자상이 중화작용을 했던 어제의 학교.

세대간의 '차이'는 있었어도 '불화'는 상상못할 악덕으로 치부한 것이죠. 이제 불초라는 묵은 시대개념은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명색이 호려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선생을 존경하는 가치관은 크게 퇴색했으며 '주변에 훌륭한 스승이 없다'는 삭막한 현실을 그대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학입니다. 세대사이에 대화가 없고 꾸준한 노력이 도자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무슨 말을 어떻게 나눌까, 마주앉아 인생의 철리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생활주변의 이야기나 주고받으면 어떨까, 해답찾기가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책임을 미룹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젊은이는 기성에게…

'말'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향해 고독의 핵심을 톺고 들어가 거기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청학자 러셀은 들려줍니다. '고독의 핵심'이 의미심장합니다.

'과묵의 미덕'을 지켜온 우리에게 학교에서조차 세대간의 대화는 한층 어렵습니다. 세대차란 어느때고 있었습니다. 젊음은 고뇌의 계질입니다. 고뇌는 오히려 창조의 태반구실을 합니다.

현대의 젊은세대건 나의 세대이든 현실과 이상의 불일치로 괴로와 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세대였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현실의 두터운 벽을 체념하지 않는 이상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같은 괴로움을 계속 겪었음을 알게된다고 토인비는 새 세대의 도전을 풀이 했습니다.

'오늘의 불초'도 여전히 이상과 현실의 중간에 위치, '괴리의 아픔'을 껍고 있을 것입니다. 괴리감을 초래한 책임은 성장세대보다 기성세대쪽이 더 무겁게 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제자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스승, 선생의 모습은 막연한 이상에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관심있는 교육현장에서 찾아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떠난 사제간은 황량과 고허를 남기고 그 영향은 사회에 파급되어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믿고 살기어려운 사회풍토가 역으로 오늘 우리의 대학에서 그리고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앞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대학지성인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호접을 방치하면 불신과 불안의 풍토에서 탈출하기가 정점 난감해 지리라는 예상은 불가피 합니다.

K형!

세대간의 대화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도의 정립을 어느 형태로 되살려야 할지가 오늘 우리 대학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숙제입니다.

불초의 영역을 무짚어 자꾸 넓히지 말고 흡혈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숨결이 있습니다. 낡은 껍질을 벗기 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오늘의 학원·학생문제를 두루 풀어가는 길은 '책임추궁'보다는 거꾸로 우리모두가 '책임통감'에서 출발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러기위해서 스승이 선생의 제자리를 확고하게 잡고나서 엄격하게 키우고 가르치면 위기의 광백은 다소나마 메워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불초의 덕'을 강요로 다듬어질 성질은 아닙니다. 밖으로 밀어내지 말고 안으로 포용하는 열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K형!

이제야 마음이 후련해 옵니다.

방황지는 영혼속에서 빠져나와 '니이체'를 만나고 '하이데거'를 만나고 겨울을 앓는 '작은천재'에게서 생활과 용기를 진정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이느새 새벽이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K형 이제 이만 그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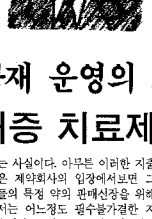
김 동 선
(서울 교무과 직원)

신약개발, 연구비 확보가 관건

내가하는 공부

연구 기자재 운영의 묘 살려야

당뇨병·치매증 치료제 개발 몰두



교수 김 ○ 씨는 지난 5년동안 노력했던 중의 하나는 우리 경희학생들 다른 명문 사학 및 국립대학 재학중인 학생들보다 양질의 을 받기위해서는 자연과학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설이 하다는 인식하에 부단히 밖부터는 연구비를 따서 연구 학문당구의 현장으로 키워 려고 했던 것이며 내부로는 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을 원 것이다.

실 국가기관에서 주는 연구 는것이 연구장비를 살 정도 액수를 주지도 않지만 후 주로 선진자국에서는 신약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산업이 고도의 기술집약을 필요로하는 부문인지라 우리로서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기본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제약회사가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에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상품광고에 쓸데없이 많은 돈을 허비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더욱 개탄할 일은 수많은 돈이 자회사의 약을 특정 대학병원이나 의원에 사입하기위하여 음성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로 연구기자재의 운용방법이 잘못되어 있어 학교 측면에서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한 듯하나 각 단과대학에서는 제각기 같은 기계를 중복되게 구입하고 있어 시설투자에 대한 운용의 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같은 캠퍼스에서 비슷한 분야끼리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게 연구기자재를 사들이는 방법만이 우리같은 사학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사준 기자재를 자기 연구실에 놓고 다른 교수가 빌리기를 원해도 쌀 대여해주지 않는 고질적인 풍토때문에 각 단과대학이 같은 기자재를 사는 이유이다.

세정부는 이제 과감하게 대학의 연구풍토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을 할 시기에 와 있다. 약학분야를 예로들면 우리의 전통약물(traditional medicine:생약제제)로부터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은 우리 실정에서 볼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분야로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훈련, 정폭적인 연구비의 증액등을 심시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선진제약기술국으로서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심어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연구실에서도 현재 전통약물로부터 치매증치료제, 소염진통제 그리고 당뇨병치료제 등의 개발을 목표로 밤낮없이 대학원생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각 분야에 전정한 전문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전문인이 많을때 서로 타인의 전문영역을 인정해 주고 상호 도와줄 수 있는 신명나는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정 성 현
(약학대 부교수)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朔風

자기 개혁이 대변할 '기수논쟁'

정권을 구분짓는 이른바 '기수논쟁'이 한창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새정권이 '5공 2기'라고 불리는 것에 마땅찮은 반응을 보이면서 '문민정부'나 '김영삼 정부'라고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6공 일부에서 소위 개혁을 추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용어는 길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는 말도 들린다.

6공 정권은 5공 정권의 적자였다. 다만 직선제 개헌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5공과 다른 공화국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전두환, 노태우씨 모두 5·17이라는 비합법적 과정을 통해 정권을 획득한 당사자들이고 88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씨의 당선이 가능했던 것은 전두환씨의 '애틋한'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5공과 6공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는 과연 무엇인가. 6공의 적자인가 아닌가. 김영삼대통령은 노태우씨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되고 키워진 대통령이 아닌것 만은 분명하다. 민자당내 민주계 인사들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 호랑이를 잡기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에 뛰어든 결과"임을 강조한다. 김대통령 지신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지 모른다. 김영삼 정부가 TK나 '민정계'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지난 3공 시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어쩌면 이승만 정권 당시부터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 기득권층에 업혀 가능한 정권이었다고 해도 일말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도 바로 이런 사실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유독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5공이나 6공과는 다른 개혁이다. 김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정부가 5공이나 6공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자락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정통 헌법학자 가운데는 "김영삼 정부는 엄밀히 말해 '5공 3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5공 3기'니 '김영삼 정부'니 하는 말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신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이나 불과 일주일만에 서울시장 자리를 물러난 김상철 서울시장, 그리고 또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박양성 보사장관의 경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듯, 개혁주체 등참자 자신들이 추구집단 혹은 기득권집단의 일원인 이상 과연 자신들을 엄마나 깨끗하게 비워내고, 개혁정회을 앞세워 소신있게 밀고나갈지 자못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변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도 이같은 중개축 행위가 일반화되 있어 평소 그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김상철씨의 말속에 바로 기득권집단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화대 고위 당지자는 최근 "과거비리는 일단 불문에 붙이겠다"는 개혁과 관련한 시정원칙을 밝혔다. 새 정부의 의지가 출범 초기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내부로부터의 뼈아픈 자기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김영삼 정부'가 '5공 3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때다.

(용준)

알림대

교수동정

감수자 교수도미

【서울캠퍼스】▲김수자(문리대·화학)교수=지난 2월21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공동연구차 미국 방문 ▲김진일(의대·의학)교수=지난 2월20일부터 오는 4월20일까지 해외연수차 미국 방문 ▲고영관(의대·의학)교수=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성동욱(의대·의학)교수=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이상래(치대·치의학)교수=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학회참석차 일본 방문 ▲신대순(밝은사회연구소)교수=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G.C.S를 립결성 및 자료수집차 뉴질랜드 와 호주 방문 ▲김정주(체대·체육학)교수=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공동연구차 미국 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송순철(행정·4) ▲김병철(정외·3) ▲김지홍(신방·4) ▲조문식(신방·92) ▲최대영(경제·4) ▲문병선(경영·4) ▲한명희(회계·4) ▲정경호(회계·2) ▲최보영(영교·2) ▲최필란(가관·1) ▲이병관(한의예·2) ▲반광현(한의학·1) ▲차희도(한의·1) ▲강구진(치의학·1) ▲박건하(축구부) ▲강희(삼육원213) ▲이은희(210) ▲권은경(212) ▲권기영(ㅎ419)

【수원캠퍼스】▲정희경(불문·3) ▲임종철(무역·2) ▲한정숙(우주·4) ▲전영수(우주) ▲이승룡(기계·3) ▲박만진(기계·4) ▲박성규(전자·3) ▲윤동식(전자·4) ▲주형원(전자·4) ▲한택점(전자·4) ▲이춘탁(화공·4) ▲김재형(건축·3) ▲김상욱(토목·4) ▲박상준(토목·4) ▲유희정(토목·3) ▲윤도진(토목) ▲최상원(토목) ▲공성원(원자·2) ▲임채정(전산·4) ▲박현근(전산) ▲정해익(농학·4) ▲신우석(농학) ▲윤여정(원예·2)

분 실

분실자 본사 편집질로

【서울캠퍼스】◆학생증=△이행은(국문·89) △송현균(불리·85) △강병철(정외·89) △홍종우(의과·90) △고경란(의과·92) △박윤경(치과·90) △심수진(기악·91) △심재곤(체육·92)

◆지 갑=△권양식(법과·86) △이해희(경제·86) △김태우(한의과·90) △김성보(한의과·88)

◆주민등록증=△김재형

【수원캠퍼스】◆지갑=△조수형(일문·91) △장선권(정자·88) △정덕규(산공·92) △송정호(원자력·92)

◆학생증=△이재영(서반아·92) △우정아(서반아·87) △이용길(행정·91) △김정아(행정·91) △유재헌(정영·91) △남정호(경영·87) △김현우(무역·88) △노정희(사회·90) △이명숙(수학·89) △염주호(수학·88) △이창준(물리·91) △김만수(화학·92) △이현재(유전·88) △김용수(우주·92) △길재형(기계·92)

동문모임

진해고 신입생 환영회

【서울캠퍼스】◆동문회 ▲창원고=오는 12일 오후 6시 유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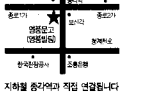
【수원캠퍼스】▲용산·수도 동문회=오는 10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오현신입생환영회=오는 10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재현 신입생환영회=오는 10일 오후 5시 외대식당 ▲서초 신입생 환영회=오는 12일 오후 5시 2호관 광장앞 ▲충주 신입생환영회=오는 11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포항고=오는 12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예천향우회=오는 10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진해고 신입생환영회=오는 11일 오후 5시반 공대휴게실

영풍문고는 대학인과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초대형 서점, 대형 문구점, 대형 음반점, 컴퓨터광장, 전시장, 휴식공간까지—

- 신학기 **대학교재** 및 **원서교재**를 완벽하게 갖춘 서점
- 무슨 책이든 즉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점**
- 최첨단 POS 시스템에 의한 **하이테크 전자서점**
-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쾌적한 서점**
- 국내 최대의 **종합문구점**, 초현대식 **음반점**이 함께 있는 복합서점
- 첨단 **컴퓨터광장**의 다양한 정보와 만나는 정보화서점
- 전시회 및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이벤트 홀** 운영의 창조적인 서점
- **편리한 교통**,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서점
- 도서안내 399-5656, 399-5678

전시판 대관 안내
출입작품전·그룹전
문의 : 725-7858



지하철 종각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영풍문고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Tel. 399-5600